

# 듣는 게 먼저다

## 이타적 유전자

박재항  
이화여대 겸임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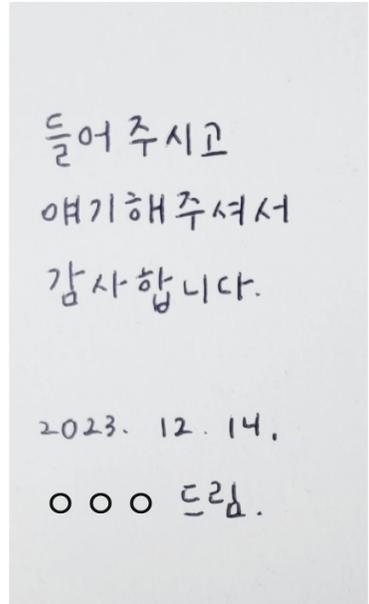
대학생을 비롯한 젊은층을 주대상으로 한 마케팅 활동에서 독보적인 위상을 쌓아온 기업 대학내일에서 '사범(師範)'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일주일 몇 차례씩 나가서 일을 한 적이 있다. 사범이라는 직함에 맞게 한 일의 대표로, 대학 시절에 마케팅 수업을 듣지 않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마케팅 25강 수업을 맡아 강의했다. 매주 한 시간 좀 넘게 하는 수업에 7~8명 정도가 참석을 했다. 그러던 어느 한 주는 수강생 친구들에게 이상하게 일이 많이 몰려서, 한 명이나 두 명만 수업에 나올 수 있는 형편이 되었다. 해당 주에 휴강을 하자는 말이 나왔는데, 그들에게 나의 대학 시절 한 스승님의 일화를 얘기해 주었다.

일천만 영화의 제목으로도 쓰인 '서울의 봄'이 좌절된 이후의 1980년대에 나는 대학을 다녔다. 경찰들이 학교 안 곳곳에 머물러 감시의 눈을 부라리고 있었지만, 시위는 끊이지 않았다. 학생운동의 전위로까지 불렸던 우리 과에서는 제법 큰 단위로 시위가 열릴 때면, 과 전체가 수업 거부를 하고 시위를 하러 나가곤 했다. 수업 거부를 하게 되면 선생님들께 미리 말씀을 드리곤 했는데, 최고 원로 선생님의 수업에서는 학생 대표가 무서워서인지 말씀도 사전에 드리지 못한 채, 그냥 강의 시간

에 단체로 들어가지 않았다. 우리 과 학생들 이야 스무 명 남짓하고 학과 사무실에서 같이 회의도 하며 수업 거부의 결의를 다지고, 모두가 함께 단체행동을 했는데, 같은 수업을 듣는 다른 학과 친구가 하나 있었다. 그에게는 아무도 거부 사실을 알려주지 않아서, 그 친구 혼자 수업에 들어가서 그 무서운 선생님과 독대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선생님께서는 별로 놀라지도 않고, 그 학생 하나만 앉혀 놓고 평소와 다름없이 두 시간 동안 수업을 하셨다.

대학내일에서 마케팅 수업을 받던 친구들에게, 나는 그런 선생님께 배워서 한 명만 수업에 참여해도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겠노라 얘기했다. 그런데 정말 딱 한 명의 여성 직원만 수업에 들어왔다. 대학 스승님이 하신 것처럼 한 시간을 정상적으로 진도를 나갔다. 수업이 끝난 후에 그 직원이 고맙다는 말과 함께 덧붙였다. "사범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두 시간 동안 혼자 수업을 들어야 했던 여학생의 기분이 어땠는지 좀 알 것 같아요."

단 한 명의 학생을 앞에 두고도 두 시간 동안 수업을 진행했던 일화를 들으면, 그 선생님을 조금이라도 아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인다. 간간하고 원칙주의자인 선생님다운 행동이라고 한다. 비슷한 분야의 전공 공부를 하고, 나나 공통의 지인들에게서 그 선생님의 얘기를 많이 들었던 내 처는, 선생님 당신의 평판은 지키시고 원칙에 충실하셨지만 혼자 수업을 들어야 했던 학생, 그리고 시위에 나설 수밖에 없던 다수 학생들에 대한



배려는 없었던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원칙의 고수와 학생들에 대한 배려의 양쪽에서 잘잘못을 어떻게 따질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학문에 관련한 세계 최고 석학이란 평가를 받으시고, 한국의 해당 학계 위상까지 올린 위업에 그 어느 누구도 반론을 제기하지 못한다. 그러나 '충동', '독재자'와 같은 별명처럼 학생들이나 애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듣거나 귀를 기울여주는 데는 부족하셨던 것 같다. 아마도 선생님께서는 그렇게 사정을 들어주고 할 여유가 없었으며, 당신도 가끔 말씀하신 '해는 기우는데 갈 길은 멀다'라는 춘추전국시대 오자서(伍子胥)의 '일모도원

(日暮途遠)' 사자성어를 들어 변명을 하실 지도 모르겠다. 과거의 어른들, 아니 지금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도 사실 남의 말을 들어주는 데 서툴다.

코로나19 직전의 2019년 대학내일에서 인턴 생활을 한 친구들 몇몇도 사범으로 교육을 했던 인연으로 지금도 일년에 서너 차례 씩 만난다. 그 중 한 친구는 나의 이전 직장 동료의 아들이다. 그 이전 동료가 이런 부탁을 했다.

"내가 경상도 촌놈으로 아들이랑 얘기만 할라치면 싸우게 되네. 이 부끄러운 애비 대신 아들놈 얘기 좀 들어주소."

자신과는 서먹한 부자관계인 아버지의 친구로, 불쑥 앞에 나타난 내게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꼭 전했다. '좋은 얘기를 해줘서 고맙다'고 했는데, 사실 그에게 젊은 이들의 우정, 놀이, 가족 관계 등의 현상과 생각을 듣는 고마운 시간이었다. 이후로도 둘만 몇 차례 만나기도 했다.

인턴을 하기 전인 2016년 가을학기 학교 수업 시간에 내 특강을 들었는데, 2019년 대학내일에서 인턴으로 다시 수업을 듣게 되었다며, 먼저 연락을 해와서 자리를 함께 한 친구도 있다. 함께 인턴을 하는 그와 같은 학교의 친구까지 해서 몇 차례 자리를 같이 하다가, 동료 아들까지 인턴들을 모아서 거의 정기적으로 만나는 모임을 결성했다. 올해 연말 함께 한 자리에서 그중 한 친구가 선물과 함께 세 줄의 짧은 인사가 담긴 감사 카드를 전해주었다.

'들어주시고

얘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그 20대 친구들에게 내가 해야 할 인사말이었다. 30년 이상 나이차가 나는 이와 한자리에 앉아, 젊은이들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시답지 않은 소리에도 반응을 해주니 말이다. 요즘 주로 쓰는 세대로 따지면 Z세대와 베이비부머의 만남이다. 감사 카드의 짧은 인사말에도 주목할 부분이 있다. '들어주는' 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먼저 나온다는 것이다. 그가 의도적으로 순서를 그리 매겼는지 모르겠으나, 들어주는 것에 먼저 감사를 전했다.

베이비부머인 또래 친구들을 만나는 자리 뿐만 아니라 좀 아래의 소위 X세대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면 '요즘 젊은 애들'의 행태에 대한 비판이 거의 항상 화제로 낀다. 신경 써서 들어보면, 그들 '요즘 젊은 애들'과 대화를 나눈 경우는 거의 없고, 한마디 흘려 듣거나 언론에서 본 것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다른 한편으로 일방적으로 얘기를 했다가 원하는 반응이 안 나와 못마땅해 하기도 한다. 방관과 무시 속에 피해의식이 겹쳐서 오해가 쌓이고 적대관계라고 해도 과장이 아닌 상태가 된다.

대화를 하자. 그러려면 듣는 게 먼저다. 그게 서로 사는 길이다. 너무나 평범하고 상투적이라 해결책이라 하기도 뭐하지만, 진리란, 올바른이란 그렇지 않은가. 그런 세대 간의 대화가 곳곳에서 퍼지는, 서로가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새해를 소망한다.

## 농축산물 무제한 증량 수입 제한 법제정 급선무

### 기고

김문수  
전남도의원



농축산물 가격을 하락시키고 농업소득을 쪼그라들게 만드는 주범이 따로 있다. 수입농축산물의 일정한 낮은 관세로 들어오는 농업정책 TRQ이다.

농협경제연구소 '농축산물 수입관리제도 운영현황과 개선방향' 자료에 따르면 2023년 9월까지 결정된 추가 TRQ 물량은 15개 품목, 61만 6,755t에 달하며, 2022년 4회에 걸친 TRQ 물량은 70만 5655톤으로 2023년 단 2회에 걸쳐, 지난해에 버금가는 물량을 낮은 관세로 들여왔고, 돼지고기는 9월까지 3만톤, 연말까지 1만 5000톤이 더 들어올 예정이다.

TRQ는 정부가 특정 수입 농축산물 중 일정 물량에는 낮은 관세를 부과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는 높은 관세를 적용해 국내 농축산물 가격 안정을 위한 제도이다.

이번 TRQ 물량은 무관세로 들어온 품목이 많았다는 것도 이 정부의 물가정책의 문제점을 농산물에 뒤집어씌우는 기막힌 현실이다. 문제는 정부 내에서 몇 단계 절차만 거치면 저율관세 물량을 늘릴 수

있다는 점이다.

기획재정부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을 이 정부가 개정해 증량 물품, 물량, 기간 등을 늘리는 방식으로 원칙 없이 규칙을 활용하는 것은 농민을 기만하는 행위이다.

증량된 TRQ는 기본관세보다 현저히 낮은 관세를 적용하여 유입되는 방식으로 2023년 9월까지 15개 품목에 61만 6755톤의 TRQ 물량이 쏟아져 들어왔다.

품목별로 보면 당초 예정물량보다 양파는 4.5배 많은 9만톤 수입으로 시장접근물량 2만 645톤의 50% 이상은 135%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 2023년 양파 20kg 한 망당 수확기 1만9000원이던 것이 12월 현재 1만2000원 아래로 폭락했으며 생산비도 안되는 현실이다.

참깨는 6만4269톤으로 3900톤 이상은 630%, 땅콩은 6000톤으로 2000톤 이상이면 230.5%, 대두는 4만 5,000톤(487%)의 관세를 부과해야 함에도 무관세 및 최저율관세로 수입되었다.

이는 농업소득과 농업생산성을 저하시키고, 농업·농민·농촌을 말살시켜 농어촌 소멸을 가속화시키는 농식품부와 기획재정부의 폐해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농업정책이 아니고 농업말살정책인 것이다. 남의 게 있어 농사를 짓지 않겠는가. 남으면 갈아엎고 물가가 오르면 TRQ 물량까지 깎아서 수입하는 정부,

이게 정부일까.

국내 농업의 상황이나 농민의 실정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TRQ의 농축산물 수입 정책을 계속 추진하면 수입 물량이 남용돼 국내 농업 경쟁력을 악화시키는 정책이 무슨 농업정책인가.

농식품부는 TRQ 물량 증량과정에 농축산물 생산자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농산물, 축산물, 임산물 각 1명 등 농축산물 무역정책심의위원회 위원에 생산자 대표가 참여하여 농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 자문·심의 품목이 4개에서 2023년부터 7개로 늘었지만, 품목연합회장 출신 위원은 여전히 4명으로, 이 정부의 농업 확대 정책을 엿볼 수 있는 단면이다.

정부는 국내산 수급 형편을 좀 더 면밀히 따지고, TRQ 운용과정에서 농축산물 생산자의 의견수렴을 강화하고,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 등에서 생산자 대표의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을 편법으로 활용할 수 없도록 무분별한 농축산물 수입 남용을 막을 수 있는 법 제정을 촉구하며, 저율관세의 수입 농축산물 확대에 의해 국내 농민이 지금까지 겪어온 불공정한 시장에 방치되고 있는 환경을 끊임없이 부추기는 정책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TRQ 도입 목적에 맞게 합리적으로 운용해줄 바란다.



### 사진으로 보는 세상

26일(현지시간) 루마니아 북부 라코바 마을에서 곰 털의 상을 입은 어린이들이 마을 주민들을 위해 춤추기 전 행진하고 있다. 루마니아 '춤추는 곰 축제'는 동물 털을 입은 사람들이 집집이 다니며 노래하고 춤추면서 악을 물리치는 전통 풍습으로 기독교 이전 시대부터 유래한 것으로 알려졌다. 라코바=AP/뉴스

### 그래픽으로 보는 세상

